

# 문화 창조자의 교육자가 가능한가?

이 영 자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오늘 한국의 학생들에게 공부는 입시지옥, 취업전선, 무한경쟁에서 살아남는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로 주입되고 있다. 모든 부모들이 피땀 흘리며, 또 일부는 부정까지 저지르면서, 자식 교육의 뒷바라지에 일생을 매달리는 것도 결국은 교육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한경쟁에서 자식을 낙오시키지 않게 하려는 몸부림인 듯하다. 무한경쟁은 말 그대로 경쟁의 치열함을 가속화하는 전쟁터를 만들어 내는 원리이며, 이 전쟁터는 그러한 몸부림들을 점점 더 맹목적인 광란으로 전락시킬 소지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교육열'은 오히려 교육을 실증시킬 뿐이다. 이러한 교육열이 높아질수록 교육의 허상들이 늘어나고 교육에 대한 거부 의 몸짓 역시 늘어난다. 교육을 도구화하는 기제들이

나 전술들은 늘어나지만, 교육의 실체는 점점 더 암흑 속에 매몰되기 쉽다. 또한 교육이 도구화될수록 교육은 선택과 보람이 아닌 강요와 억지의 짐작처럼 또는 거부의 대상으로 인지될 소지가 있다. 노동이 돈벌이와 여가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것처럼, 학교공부를 일종의 노동의 의무로 간주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은 결국 자기소외를 체험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학교교육을 강요당하는 풍토가 지속되는 한, 또한 학교교육이 부모의 과잉보호와 맹목적인 교육열의 싸움터가 되는 한, 교육의 참뜻을 살리기는 힘들 것이며, 특히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문화산업은 이러한 학교교육을 대신하여 학생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가

르치고 있다. 이 가르침은 특히 감성과 취향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무의식까지 파고들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이나 논리적 접근보다는 느낌과 감각적 접근을 선호하게 만드는 경향을 지닌다. 영상세대라고도 불리는 오늘의 젊은 세대는 문화산업의 점점 더 중요한 고객이 되어갈수록 딱딱한 이론이나 사변적 학문세계를 더욱 더 낯설게 느끼는 감성을 익혀간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은 입시지옥 속에서 공부에 재미를 붙이기는커녕 공부에 대한 일종의 적대감을 갖거나 또는 학교교육 자체를 일종의 사회적 억압으로 감지하게 만드는 교육풍토 속에 살고 있다. 문화산업은 바로 이러한 억압을 풀어주는 배려와 위안물을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매력과 호소력을 지닐 수가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재미와 쾌락을 동반하는 실질적인 학습의 장이 되는 것이다. 문화산업의 교육적 효과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따지기에 앞서 제기되는 문제는 그 영향력이 이제 학교 강의실과 캠퍼스에 깊숙이 침투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침투현상에 대해 학교는 무방비 상태에 있고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학교교육과 대학문화의 독자적·자율적 공간이 문화산업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교육의 가르침이 상업화된 규범이나 문화상품의 유행 앞에서 그 의미가 퇴색해가고 있음을 말한다. 문화산업의 침식에 방치되는 교육의 현장에서 대학의 정체성 자체가 혼란에 빠지는 위험을 보게 된다. '교육자'의 노릇을 대신하는 문화산업에 포위된 학교는 더 이상 '상아탑'

의 환상을 고집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의 시간은 길어지고 그 내용도 복잡해지고 또 교육을 하는 제도와 방법론 역시 정교화되었지만, 인간 그 자체를 발전시키는 교육은 결국 퇴보해가는 것이 아닌가를 의심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 제도적 형식의 희생물이 되는 교육이 과연 인간을 교육하는 것일 수 있는지도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교육이 인간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면 그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를 캐물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새삼 철저하게 따져보아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교육 그 자체에 대한 열의와 재미를 갖게 하는 교육 방법, 또는 반지성적인 성향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연구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교육을 받는 그 자리가 단순히 자격증을 발급받는 자리가 아니라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문화적 저항력을 키워내고 독창적인 대안문화를 만들어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문화창조의 교육터를 닦아가는 길을 열심히 탐색해야 할 것이다. ■

---

이영자/파리10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파리의 사회과학고등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1982년부터 가톨릭대학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 『성평등의 사회학』, 『영화로 읽은 여성의 삶』, 『창조적 참여를 위하여』, 『한국인의 일상문화』 등이 있고, "민족문제, 국가, 이데올로기", "페미니스트 패러다임의 사회학을 위한 시론"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